

도서관인의



## 도서관 이외의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서 인명사전

김 수 형\*

우리는 Gabriel Naude, Shiyali Ramamrita Ranganathan, Melvil Dewey, 박봉석 등의 위대한 사서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도서관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이들의 이름이 생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 중에는 도서관과 관련된 훌륭한 분들이 많았다. 도서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도서관 이외의 분야에서 더욱 뛰어난 활동을 함으로써 유명한 인물들을 인명사전의 형식으로 연대순으로 정리해보았다.

도가(道家)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노자(老子)는 주나라 왕실의 수장실(守藏室), 오늘날로 치면 왕립도서관에서 근무하였다. 주나라의 쇠퇴를 한탄하고 은퇴할 것을 결심한 노자가 서방(西方)으로 떠나면서 2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도가사상의 효시인 도덕경(道德經)이다.

그리스의 시인이며 문헌학자인 Callimachos(BC 305?~240?)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사서였다. 헬레니즘 시대의 시(詩)의 완성자이

기도 했던 그는 그리스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정리하여 120권의 목록으로 종합한 Pinakes를 펴냈다.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Eratosthenes(BC 275?~194?)는 최초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지리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사서로 근무했으며 BC 240년에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이 되었다.

독일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Gottfried Von Leibniz(1646~1716)는 하노버와 볼핀뷔텔 도서관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모범적인 도서관운영으로 도서관학의 이론정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Benjamin Franklin(1706~1790)는 1731년 회원제 대출도서관인 필라델피아 도서관회사를 설립하여 근대 공공도서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는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 기초위원이 되어 토마스 제퍼슨을 도왔다.

\* 동명대학 도서관 사서(SADRANI@chollian.net)

영국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였던 David Hume(1711~1776)은 1752년부터 1757년까지 에딘버러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며 대저(大著) 잉글랜드사를 집필하였다.

이태리의 문학자인 Giovanni de Seingalt Casanova(1725~1798)는 말년에 보헤미아의 독스城에 위치한 자신의 친구 발드슈타인 백작의 도서관 사서로 일하였다. 그 곳에서 프랑스로 쓴 '회상록(Memories)'은 122명과의 연애담을 다룬 엽색 생활기로 유명하며 로코코시대 상류사회의 구체적인 삶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극작가 Franz Grillparzer(1791~1872)는 도서관 사서보와 궁정의 문서과장을 거쳐 만년에는 상원의원을 지냈다. 그는 조비(Die Ahnfrau), 금양모피(Das Goldene Vlies) 등의 작품을 남겼다.

미국의 음악학자이며 베토벤 연구가인 Alexander Wheelock Thayer(1817~1897)는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뒤 동대학 도서관의 사서보로 일하면서 베토벤의 전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1849년 이후 유럽에서 전기(傳記) 자료의 수집을 시작했으며 이후 '베토벤傳'을 썼다.

영국의 성직자이자 중세교회사의 권위자였던 Francis Aidan Gasquet(1846~1929)는 그레고리신학교 교장 및 수도원장, 국제성서교정위원회장을 거쳐 1919년 교황청 도서관 사서, 1920년 교황청 기록문고 관리자가 되었다.

입센과 더불어 근세 북유럽의 대문호였던 스

웨덴의 August Strindberg(1849~1912)는 스톡홀름의 왕립도서관에서 사서보로 일한 적이 있다.

교황 피오 11세(1857~1939)는 교황이 되기 전 사서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밀란의 엠브로시안 도서관에서 사서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1911년의 바티칸 도서관으로 초빙되어 4년 후 바티칸 도서관을 완벽한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1922년부터 1939년까지 교황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시인이자 작가이며 Christian Science Monitor의 칼럼니스트였던 Sam Walter Foss(1858~1911)는 MA 공공도서관의 사서로 근무하였다.

러시아 시인인 Anna Andreevna Ahmatova(1889~1966)는 러시아혁명 뒤 농과대학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시집 '큰 상자', '서기 1921년' 등을 출간하였다.

극작가, 시인, 법률가이자 UNESCO의 창설 멤버이기도 했던 Archibald MacLeish(1892~1982)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1939년부터 1944년까지 미국의회도서관의 9대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힘썼다.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은 베이징(北京)대학의 도서관에서 사서보로 근무하면서 마르크스 연구에 몰두하였다. 후일 그는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자가 된다. 베이징대학은 마오쩌둥이 사서보조원이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도서관

2층에 그의 흉상을 전시하고 있다.

공산주의자 색출과 마피아 소탕으로 유명한 J. Edgar Hoover(1895~1972)의 첫 직업은 미의회도서관에서 문서수발과 편목을 하는 일이었다. 그는 1924년부터 1972년 사망할 때까지 48년 동안 미국연방수사국(FBI)의 국장으로 활약했다.

아르헨티나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Jorge Luis Borges(1899~1986)는 1946년 페론 정권에 대한 공개비판으로 시립도서관 사서직에서 해임되었으나 1955년 페론의 실각으로 국립도서관장직에 임명된다. 1973년 새로 들어선 페론 정부에 의해 국립도서관장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책을 너무 많이 본 나머지 시력을 소진하여 생애 마지막 30년을 시각장애인으로 보냈다. 그의 유명한 단편 '바벨의 도서관'은 우주를 도서관에 비유한 상징적인 작품이다.

소설 'Room at the Top'으로 잘 알려진 John Braine(1922~1986)은 Bingley 공공도서관, Northumberland 주립도서관, Yorks 주립도서관 등에서 다년간 사서로 근무하기도 했다.

불가리아 정치인인 Zhelio Zhelev(1935~)는 소피아대학을 졸업한 후 도서관 사서, 소피아대학 조교 등을 지낸 경험이 있다. 1989년 야당연합 '민주세력동맹(UDF)'의 초대의장에 취임하였고 1990년 총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1992년 재선되었다.

Laura Welch Bush(1946~)는 남부감리교대(SMU)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텍사스주립대에서 도서관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1968년부터 초등학교 교사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였으며, 1977년 사서로 일할 때 우연히 도서관에 들른 George W. Bush를 만나 3개월만에 결혼했다. George W. Bush가 텍사스 주지사였을 때 Laura Welch Bush는 문맹퇴치와 독서장려운동을 벌였으며 텍사스주의회에서 아동독서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공헌했다. 2001년 1월, George W. Bush가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그녀는 퍼스트레이디가 된다.

이외에도 환상교향곡을 남긴 프랑스의 작곡가 Hector Berlioz(1803~1863), 산소를 발견한 영국의 화학자 Joseph Priestley(1733~1804) 등도 도서관 사서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 알 려 드 립 니 다

이번호의 '북리뷰 : 책을 읽는 사람들'은 기사가 넘치는 관계로 쉬게 되었습니다.

다음호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뵐 것입니다. ■ 편집자